

작은 실천이 만들어 준 권리존중의 시작

Ⅰ. 보육교직원 권리존중의 필요성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부모와 교사의 관계이지만 매스컴의 영향 탓인지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도 항상 의심의 눈길을 교사에게 보내고는 한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은 부모님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보고자 하였다. 보육교직원이 감정 노동자가 아닌 교사로서 “존중받음”을 통하여 부모와 영아 그리고 교사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으로의 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보육교직원이 존중받음을 느낄 때 교사는 영아를 사랑으로 보육하고 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캠페인’을 통해 보육 교직원에 관한 편견을 줄여 보고 권리존중의 방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Ⅱ. 보육교직원 권리존중의 실행방법

- ①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포스터 현관 출입구에 부착하기
 -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포스터를 현관문에 부착하고 부모님들께 보육 교직원 권리존중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② 부모님과 함께하는 권리존중 실행 계획
 - 키즈노트 알림장을 통하여 보육교직원과 부모님께 캠페인 활동을 전달하여 등·하원 시 함께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1주 차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
2주 차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하기
3주 차	“화이팅 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두 주먹 불끈 쥐고 제스처와 함께 표현하기
4주 차	손바닥 마주치며(하이파이브) 서로 칭찬하기
5주 차	캠페인 활동의 마무리를 알리며 감사 인사 나누기

Ⅲ.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진행 실행

①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포스터 현관 출입구에 부착하기

- 이번 권리존중 캠페인에서는 현관에 관련 포스터를 붙이고 영아와 더불어 보육교직원 역시 존중받아야 함을 부모님께 알리기로 했다.



② 부모님과 함께하는 권리 존중

어린이집 키즈노트 공지사항에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캠페인에 대해 공지하였다. 1주라는 시간을 간격으로 매주 1가지 미션을 제시하여 부모님, 보육교직원 모두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게 안내하였다.

♥키즈노트 공지사항 예시

공지사항 제목	주제	차별
<p>사랑어린이집 어린이집</p> <p>06월 17일 월요일 보육교직원</p> <p>30명 중 29명 참석 ></p> <p>주제: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캠페인</p> <p>안녕하세요.</p> <p>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p> <p>선생님을 만나면 어린이집에서 차점하는 미션을 수행해주세요.</p> <p>선생님, 부모님 모두 함께 진행합니다~</p> <p>1주차: 6월 17일~6월 21일 까지</p> <p>“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p> <p>조금 익숙했지만 모두 즐기네 보아료^^</p>	1주차	<p>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p> <p>▶일주일 동안 캠페인 활동 실시</p>

③ 부모와 함께하는 권리존중 실행 결과

1주 차 :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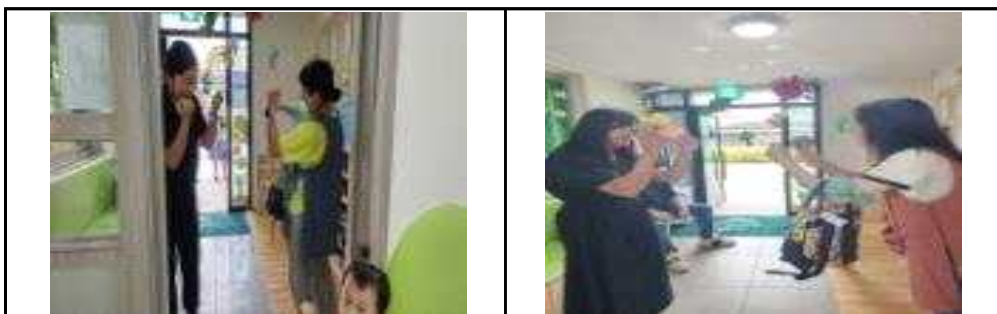
▶ 항상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감사합니다.”하고 인사를 하니 부모와 교사 모두 처음에는 어색해했다.
하지만 매일 같이 꾸준히 실시하니 서로 간의 어색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였다.

2주 차 :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 몇몇 부모님들은 손으로 제스처까지 하시며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를 외쳤다.
조금씩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3주 차 : “화이팅 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두 주먹 불끈 쥐고 제스처와 함께 표현하기



▶ 2주 차의 캠페인을 연계하여 주먹 불끈 쥐고 “파이팅 하세요.”를 외치니 부모님들의 반응은 훨씬 적극적이었다. 선생님과 부모님 모두 웃으며 활동을 진행하고,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교직원보다 부모님이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모습을 보

였다.

4주 차: 손바닥 마주치며(하이파이브) 서로 칭찬하기



▶ 3주 동안 진행한 활동들 덕분에 부모님과 보육교직원의 손바닥 마주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보육교직원과 부모님들 사이에 여전히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교직원은 부모님 한분 한분 칭찬 멘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칭찬이 되지 않을 경우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도 보였다. 부모님들도 보육교직원을 칭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무리 : 캠페인 활동의 마무리를 알리며 감사 인사 나누기

▶ 4주간의 보육 교직원 권리존중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모님들에게 보육교직원 권리존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음료를 나누어 드렸다. 음료에는 앞으로도 보육 교직원 권리존중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권리존중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권리 존중 라벨 내용♥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 **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존중**받아야 하며 **편견 없이** 바라봐 주세요. “
보육교사 인권존중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 아버님이 오후 하원 시간에 “비타 000 한 병이 출근하는 저에게는 힘이 되

었습니다. 작은 것에 힘이 나듯 선생님들도 힘이 났으면 합니다.”하고 말씀해 주셔서 담임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작은 실천, 우리 어린이집의 노력이 부모님과 보육교직원 모두에게 힘이 되었다.

Ⅳ. 평 가

① 부모의 평가

평소에 “감사하다.”라고 생각만 했지, 선생님에게 표현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처음 캠페인을 실행할 때는 선생님과 마주 보며 인사를 나누는 활동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 하니 쑥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쑥스러움은 사라지고,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생님에게 갖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나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여 선생님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번 캠페인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선생님께 존중의 마음을 더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선생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전에 먼저 선생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다.

② 교사의 평가

부모님과 처음의 어색함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서서히 친밀감으로 변하였다. 친밀감으로 변하면서 부모님께 가지고 있었던 소통의 어려움도 조금씩 사라졌다. 이번 한 번의 캠페인으로 모든 어머니, 아버님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어머니의 변화가 다른 어머니들에게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인 나부터, 우리 어린이집에서부터 변화가 생기면 언젠가는 모든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Ⅴ.보육교직원 권리존중을 위한 향후 계획

이번 권리존중 캠페인을 실행하며 교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편견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한 번의 캠페인으로 교사에 대한 인식변화와 편견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교사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을 서로 소통해 보는 시간을 만들어 서로를 이해해 가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더불어 늘 함께하지 못하는 직장맘을 위해 저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 한다. 직장맘은 보육교직원을 마주하는 시간이 다른 부모님들보다 짧아 오해의 요소가 많다. 오해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맘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의 입장 차이와 편견을 해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렇게 한 발자국씩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이 부모님에게 다가갈 때 부모님들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존중의 싹이 트고 그 싹은 단단한 뿌리를 내릴 것이라 믿는다. 우리 어린이집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언젠가는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존중이라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다.